카메라 촛점

"내원자를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"

건협 경기지부, 캠페인 전개

◎… 健協 경기도지부가 "내원자를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"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더욱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.

◎…이 캠페인은 지난 1월 3일, 시무식 때에 제안된 이후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,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보다 성실해져 내원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.

◎…장용준 경기도지부 사무국장은, 『내 가족을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 잘하고 싶은것이 사람의 마음이죠.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정성을 쏟게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.』라고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.

〈사진 : 내원자 건강상담·캠페인 사진〉